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4년 포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十행동 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마 19:16-30)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16절).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합니다. 젊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 이토록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룩한 가치관을 뒤로 한 채 좋은 대학 졸업해서, 돈 많이 벌고, 수준 있는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인생 목표인 젊은이들이 대부분인데 본문의 청년은 참으로 의식 있고, 올바르고, 인생의 깊은 맛을 아는 신실한 청년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네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17절)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청년은 “내가 지키었사온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20절) 라고 반문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이 청년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아니라 큰 부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매우 영적인 사람이었고 삶의 깊이를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21절). 만약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응했다면 이 청년은 또 한 명의 사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에게는 재물이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22절). 그는 단지 예수님께로부터 칭찬 받고, 인정 받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

인생의 많은 문제 끝에는 돈이 있습니다. 돈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실제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돈은 선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면 돈은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그리하여 돈의 지배를 받는 처량하고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청년은 참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며,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막 10:17). 그러나 그의 겸손과 도덕적 열심과 영적인 갈망을 송두리째 삼켜버린 것이 바로 그의 재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29절).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신앙은 커녕 세속의 가치에 파묻혀 우상숭배자로 살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모두 삭개오처럼,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리마대 요셉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물질의 유혹을 뒤로 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What do I still Lack?

(Matt.19:16-30)

“Teacher, what good thing must I do to get eternal life?” (v. 16)

A young man came to Jesus and asked. Really it must have been a precious figure that a young man became interested in eternal life. By ignoring the holy value, the fact that young man graduated from good college, earned much money, met a good marriage partner, happily ate, and lived with purpose. However, the young man in the text was very conscious and right, and he was a serious man who knew the deep taste of life.

Jesus replied to him, “if you want to enter life, obey the commandments” (v. 17). But the young man answered back, “I kept all these, what do I still lack?” (v. 20) By reading the Gospel of Luke chapter 18, we found out that he was not only a member of the Sanhedrin but also a rich man. It is clear that he was a very spiritual man and knew the depth of life.

However, Jesus said to the young man what he never expected at all. “If you want to be perfect, go, sell your possessions and give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Then come, follow me” (v. 21). If he accepted Jesus word, the young man might have been an Apostle. But he left Jesus right away after hearing Jesus’ word. Why did he leave Jesus? because he had great wealth (v. 2). He just came to Jesus in order to get praised and to receive much recognition.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he will be devoted to the one and he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Matt 6:24).

There is money at the end of many matters in our life. Money is a very practical and an important matter for us. Money itself is not bad. Money is not good, but it is not bad. The mind of those who love only money can be a root of million evil.

If we are not able to overcome the temptation of materials, money will be our idol. Accordingly, we cannot help generating into the plaintive and disgraceful life of which we are governed by mo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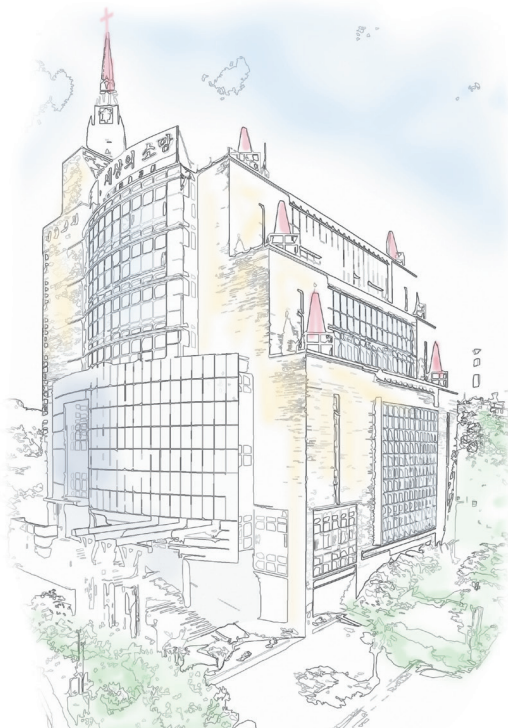
The young man in the text was good and fine. Moreover, he was even humble (Mark 10:17). However, the fact that he completely swallowed up his humility, moral enthusiasm, and spiritual desire was because of his wealth.

My beloved Christians,

“And everyone who has left house or brothers or sisters or father or mother or wife, or children for my sake will receive a hundred times as much and will inherit eternal life” (v.29).

The creator, Almighty God who created all things by word in the universe does not lack anything. God does not ask us for any materials. It means that we do not commit the foolishness of which we cannot see the glory of God. If we cannot overcome the temptation of material things, far from having faith, we cannot help living our life as the worshiper of idol by being buried in the worldly value.

Like Zacchaeus, Abraham, David, Joseph of Arimathea, Priscilla and Aquila, by leaving the temptation of materials, sharing grace and blessing that are given by God with neighbors.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will be the people of faith who are precious used by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4사명자대회 승전보고

- 오늘 찬양예배 시 -

국가와 민족과 가정,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2014년 사명자대회를 10월 5일(주)~11월 23일(주)까지 50일간 시행하였다. 24시간 연속기도, 다니엘의 기도 등 기도운동과 마음에 품고 있던 VIP를 전도하여 『VIP초

대 새생명축제』를 개최하였다 또한 지난 주 17일부터는 특별새벽기도로 「복 있는 자의 삶」(마 5:12)이란 주제로 모였다.

이제 감사하는 승전보고가 오늘 찬양예배 시에 있을 예정이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의식개혁운동 대토론회

12월 2일(화) 오후1시반 - 5시 / 은행연합회관 대강당 (을지로2가)

세월호 참사이후 국가개조를 위해서는 국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범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상임이사 : 이종윤 원로목사)』은 의식개혁운동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법과 질서지키기 운동본부', '정직운동본부', '나눔운동본부', '절제 및

환경보존운동본부'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이번이 의식개혁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대토론회를 갖게 되었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란다.

2015년 농어촌100교회 · Vision2020 · 한 가정 한 선교사 후원

다음 주 부터 후원자 접수 - 사무국에서

2015년도 농어촌100교회 운동과 Vision2020 운동, 한 가정 한 선교사 운동 후원자 접수를 사무국에서 받는다. 내년에도 따뜻한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민족,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 36학기 서울성경대학 및 2014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수료자 명단

서울음악교실 - 25명

강소영 고은선 기세현 김동진 김미애 김유정 김하림 김하은 노용금 맹주는 박금희 박명숙 백승호 손용문 안혜경 여우구 오인규 원향빈 이근홍 이성희4 이원희 이혜원 장동철 정은경4 조재원1

구진영 김보민 김세연 김영아 박선미 박은진 박현희 송지윤 송혜원 신경미 신아령 신하윤 우정서 윤서진 윤석민 음혜경 이만이주현 이혜진 조동희 최시원

1 유경희 이부자 이영란2 이영자8 이옥수 이혜영 장호림 전용순 정임숙 최복희 한미희 함정희

살림경로대학 - 67명

공진문 국산옥 김경자 김경철 김금자1 김길자 김덕자 김동두 김만순 김미순 김복순5 김성순 김수복 김연정 김영진 김영철 김자경 김정용 김활란 나순금 나옥녀 문시봉 민정아 박경산 박경희 박동희 박봉금 박영숙 박정숙3 박춘자 박혜숙 백영숙 송옥혜 신종건 심상목 안창희 양옥자 여유기 오옥화 원명희 유복달 유순임 윤만현 이경희2 이덕빈 이부자 이삼정 이재순 이춘자 인찬희 임정연 전인화 전해원 정병무 정봉금 정빈모 정애신 정희자 조귀순 조영복 최무선 최정옥 최희숙 최종희 최향화 최향봉 황성연 황일운

비블리오 바이블스쿨 - 35명

강예교 고하은 권예지 김나운 김종혁 김채운 김해나 남윤호 노진철 노진희 박시은 박이진 박인성 박준서 배은찬 설재울 손예은 손예진 송하영 양병제 여태운 우정균 유주희 윤자은 이상훈 이수아6 이수아7 이시우 이태민 장유정 조민성 조연우 최주하 황희성 홍성욱

성경통독반 - 30명

강정화 권민정2 권은주 김경희14 김성혜 김수자 김인실 김인영2 문정원 박명애 백현주 서정희1 선혜영 송영선 유미숙2 이경란2 이민경2 이민숙 이윤진1 이윤희 인숙4 이진리 이태정 이현주12 정선경 정임숙 조정옥 조현주1 최세정 호미정

교구일꾼양성반 - 14명

강소영 김경순1 김미숙7 김정순6 박정애 박찬미 정금희1 정영애 정은경4 신혜식 유미영 이영미 이영선 한남숙

교사양성반 - 9명

고혜경 기세현 김리나1 김민재5 김혜중 백승호 신경미 양미희 이상숙3

어머니힐링스쿨 - 41명

김고은 김미숙7 김미영3 김숙영2 김현정15 박길자 박계진 박화실 박현영 백난희 손지희 서혜숙 석상화 석춘희 송미애 송미자 송지윤 송행희 양종숙 유기순 유승애 윤계진 윤소영2 이경희3 이미자2 이영란3 이영임 이의진 이주연 이혜진 임여은 장민자 지강희 전효신 조정옥 최금숙 최종희 한은경 한은영 한효숙 홍경아

선교대학 - 9명

박 옥 박윤혜 박종권2 송행희 유문건 윤명구 이영기 이영숙1 장석남

결혼예비학교 - 10명

강해주 길이세 김명자3 박화실 신유희 이다영 이종관 임선영 최진경 황남득

구약의 파노라마 plus 영성큐티 - 14명

김순진 김지수12 박 옥 서호영 손경숙1 오민조 유영일 유영희1 유혜영1 이동욱2 이미자3 이옥수 차인화 최형숙

전도학교 - 26명

김성미1 김인아 김영화4 김영애 김용자1 김숙자1 김은연 남경혜 박동희 송명심 이진리 이영금 이유희 이영란2 임선영 장효영 장영순 장동철 전봉길 전희정 정호진2 최형숙 한진수 표현희 홍영미 황금선

에스라반 - 20명

곽 숙 김성미1 김수자 김은순 김은희1 김재이 손경숙1 신선주

총 : 321명



Come, Come Emmanuel!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의 절기와 행사를 정하여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제정된 것이 교회력(教會曆)입니다.

교회력은 대림절(待臨節, Advent)로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에 해당되며 매년 11월 30일과 가장 가까운 주일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은 11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대망하던 구약성경의 예언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약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의 강단 색깔은 절제와 경건과 준비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대림절은 강림절(降臨節) 또는 대강절(待降節)이라고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조용히 묵상하는 기간이 되도록 합시다.

무엇이 교회를 개혁주의로 만들까?

What makes a Church Reformed?

(에베소서 4:1-7, 11-12)

전세계적으로 교회는 신학적 입장을 따라 자유주의, 복음주의, 개혁주의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울교회는 장로교회이고, 장로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주의 신앙에 기초를 두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개혁주의는 Sola scriptura, Sola fide, Sola gratia, Solus Christus, Soli Deo gloria 라는 다섯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Five Sola는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개혁주의 교회의 중요한 신학적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고든 콘웰 신학교의 David F. Well 교수는 '진리의 자리가 없다(No place for truth)'라는 저서에서 '오늘의 복음주의 교회는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세상적 변명과 행복의 나라를 건설하려는데 초점을 맞추어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오늘날의 복음주의 교회는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교회는 이단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 교회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하듯이 복음주의자들 또한 성경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는 죄와 구원은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가 아닌 삶의 모델쯤으로 여기고 행복한 결혼생활, 훌륭한 자녀를 키우는 방법 등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는 등한시 합니다. 또 교인의 숫자를 팽창시키는 일이나 헌금 증액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니 이와 같은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구원어로 이끌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안이 있습니까? 오직 개혁주의 신학만이 교회가 살아남는 대안입니다. 1996년 120명의 목회자와 신학자와 파라체치의 지도자들이 미국의 메사추세츠주 캠브리지시에 모여서 발표와 토론을 거쳐 소위 '캠브리지 선언'을 했는데 그들은 여기에서 종교개혁 교리를 종합한 소위 'Sola(alone or only)'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Five Sola 없이 참 교회는 존재할 수 없고, 얼마 동안 회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섯 개의 Sola 없이는 한국 교회도 살아남 길이 없습니다.

1. 그렇다면 성경적 개혁교회가 되는 공식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Sola scriptura(오직 성경만으로)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권위와 우리의 궁극적 권위가 이 세상의 권위보다 앞서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을 떠난 어떤 권위도 성경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Sola scriptura는 종교개혁의 공식화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서울교회는 설립 23주년을 맞이하여 Sola scriptura의 원리를 회복하고 이 원리를 따라서 목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중윤 원로목사

복음주의는 그 어떤 음악이나 감동적인 간증이나 감성적인 호소를 좋은 보조자료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명목상의 신자, 곧 Nominal Christian을 양산할 뿐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1:23절이 분명히 지적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회개혁을 하는데도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다보면 어거스틴이나 교부들의 문서를 인용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결론은 성경입니다.

2. 개혁주의의 구체적 원리는 Sola fide(오직 믿음만으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 만 달란트를 탕감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1년에 로마에 바친 세금이 총 700달란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일 만 달란트는 개인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통장에 일 만 달란트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고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Sola fide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Sola gratia)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그리스도만으로(Solus Christus)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서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25)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인간이 칭의를 얻게 되었고, 칭의의 자료는 하나님의 은혜요(24), 칭의의 수단은 믿음(25)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참회를 하고 선행을 하고 금식을 해야 칭의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세례를 받고 선행을 해야 칭의를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요한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이것을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에는 지식과 동의와 신뢰의 세 가지 요소가 있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3. 새로운 교회개혁을 향하여 Soli Deo gloria(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를 추구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마지막 모토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Soli Deo gloria)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바 Sola scriptura, Sola fide, Sola gratia, Solus Christus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세속주의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알미니안주의도 심지어 칼빈주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주의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서울교회는 설립 23주년이 된 이 시점에서 더욱 성숙하고 개혁주의 입장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세워진 한국의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엡 4장). 교회, 곧 에클레시아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든 겸손(be Completely humble)으로 살아야 합니다. 임직을 받기 전에도 겸손하게 살아야 하지만 임직을 받은 후에는 더욱 겸손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인의 3대 덕성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로 해야 합니다. 셋째는 오래 참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기독교는 행복의 종교가 아니고 고난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오래 참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어떻게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연합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냈던 사람이지만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를 이단이라고 내쫓았겠지만 오히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성령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바울이 안수해 줄 때 그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마침내 위대한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장로교회만도 250여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심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셨으니 우리 모두는 교회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개혁주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리: 허숙권사)



2014 사명자대회를 마치며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박두호 장로
(사명자대회 부장)

우리 서울교회는 지난 50일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명자로 불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며 전도하게 하셔서 많은 기도 응답과 간증을 주셨습니다.

5,036명의 VIP들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생명축제를 통해 771명의 VIP들을 서울교회에 방문하게 하시고 480명의 귀한 새생명들을 등록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학교 새생명축제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144명의 친구를, 예배다부 8분을 VIP로 초청하여 교회를 소개하고 자랑하며 예수님을 전하고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헌신해 주신 교사님, 교역자님, 서울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4시간 연속기도에 연인원 6,445명이 참여하여 성경은 33,225장을 읽고 27독을 하였으며 특별 새벽 기도회에 2,867명이 참여하여 말씀을 받고 마지막날에는 피택권사, 집사님들이 준비해 주신 감사의 떡을 때며 지난 50일 동안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며 교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번 사명자 대회를 위해 시간을 드리고 몸과 물질을 드러 사명을 감당해 주신 제1권사회, 70인전도대, 교구와 다락방, 교구간사님, 여러 모양으로 VIP들을 섬겨 주셨던 한 분! 한 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철야하시며 서울교회에 주신 VIP들을 가슴에 안고 애용하며 기도에 동참해 주신 3분의 권사님! 몸이 불편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는 못하셨지만 집에서 병상에서 기도제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신 K장로님, L권사님, L집사님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엄마와 아들딸과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켜 주시고 눈물로 드리진 한분 한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준비된 말씀으로 영혼을 살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받게 하시며 특별새벽기도를 인도해 주신 박노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서울교회와 만나신 VIP들과 480명의 등록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 교회에 잘 정착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라" 부탁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서울교회 모두 되시길 소원합니다.

■ 특별찬양 ■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호산나찬양대(대장:김유경 권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구민영 선생의 지휘로 세 편의 합창 "아름다운 세상 주신 주께 (John Rutter곡)", "오 놀라운 구세주 (William J.Kirkpatrick곡)",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K.Christopher & L.June 편곡)"을 드리며 구민영 선생이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나운영 곡)"를 독창한다. 오르가니스트 김윤지 성도, 피아니스트 흥해란 집사가 함께 연주한다.

70인 전도대 극동방송 출연 12월 2일(화) 오전10시10분

우리 교회 70인 전도대(대장 : 김상태 집사)가 12월 2일(화) 오전10시10분 극동방송 "사랑의 불안" 코너(우리교회 최고)에 출연한다. 많은 성도들의 청취 바란다. 극동방송 : FM106.9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2월2일(화) 새로운한국 국민운동 의식개혁 대토론회를 소집한다.
- 이갑진 장로는 11.25-12.10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리는 세계기독교인대회 및 회교단 정책회의의 참가자 출장
- 연주회 : 장윤식 집사(8교구) 클래식 기타 연주회 12월6일(토) 오후5시 오름푸스홀(삼성동)
- 연주회 : 12교구 노은아 집사 해금연주회 '사슴이 해금을 켜거늘' 12월 2일(화) 국립국악원 우면당, 티켓 문의 홍성모 집사 010-8158-9047
- 주일식당봉사 : 이석선교회 도르가전도회(11.30) 빌립선교회 리브가전도회(12.7)
- 금주의 식사 제공 : 홍성주 장로 여현진 권사 가정 전교인 집사 이은경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대립절을 시작하며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하도록
2. 새롭게 임직 받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섬김의 본과 함께 교회를 힘 있게 세워가는 일꾼이 되도록
3. 12월 한 달을 통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지혜를 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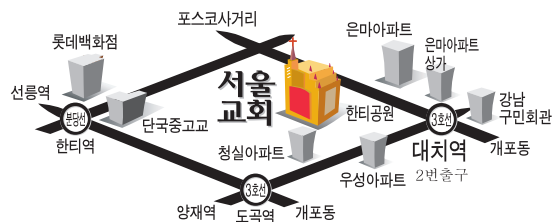


사진 : 손동혁 집사 이준대 집사(편집부)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 배	오후 1시 30분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